

목회자의 프락



정용명 목사
청풍성교회 담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최근에도,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6개월을 날마다 하루 세 번 감사하는 습관을 쌓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일에 감사가 자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침 감사, 정오 낮 12시 감사, 저녁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감사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고 정오 감사는 매일 낮 12시에 점심을 드시기 전에 오늘 이 하루의 감사를 점검하고 저녁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도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청풍성교회 나이든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해방이

하루 하루를 감사!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해벨인데 바람 수증기 연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삶을 즐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인 시인의 작은 기쁨의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감동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인생은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 입고 안개와 같고 수수께끼처럼 풀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속제하듯이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

실감이 납니다. 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감사가 회복되어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처럼 축복해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질 수 있도록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원하는 것 또 하나는 원치 않는 것 하나는 기쁜 것 하나는 슬픈 것들이 계속되는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춤출 때는 기뻐 춤을 추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니 하나님이 인생의 콤파스가 되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재료를 가지고 반드시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콤파스가 되어 주시도록 사모하며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여제의 눈물이 여제의 아픔과 한숨이 재료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땅을 소종길처럼 자냈습니다. 감사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겨 봅시다. 아멘.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문화원 이사장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예술이다.

대부분의 부부들을 멀리서 보면 더없이 다정하게 보인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부의 모습과 실제 속사정은 다르다. 경영대 AMP 과정 부부모임에서 강의할 한 일이 있다. 강의가 끝난 후 어느 여직사(CEO) 한분이 다가오더니 말했다.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좋은 남편과 같이 살으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서 있던 내 아내가 한 마디를 거른다.
“뒤편, 한번 같이 살아볼래요?”
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남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좋았던 사랑의 관계도 익숙해지면 사들해진다. 그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것에는 선행과 기대가 있다. 익숙해 질 때까지 가슴이

부풀기도하고 짜릿한 동물적 심리가 작동하기도 한다.

3번이나 이혼과 재혼을 한 어떤 여인과 상담을 한 일이 있다.

세 남자와 살아보았으니 남자를 알 법도 하지만 남성들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여전히 새로운 아픔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연들과 아픔을 들 어주었다.

공감도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몇 번의 상담을 했다. 이제 치

유가 된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또 다시 이혼하겠습니까?” 그대 로 살겠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바꾸어 보았자 그들이 그들이 기 때문이란단. 그 인간이 그 인간 들이니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갈등은 교양이나 나이, 경륜이 나 노련미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갈등은 결혼 생활에 거 쳐야 할 과정일 뿐이다. 부부란

싸우면서 정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 부부관계가 사들해진 부부가 자기최면을 걸어본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 주문을 외친다.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

같은 배우자와 살아도 늘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다.

서구의 이혼자 통계가 있다. 초혼자들의 이혼율은 40%이다. 그

려나 재혼자들의 이혼율은 75~80%에 이른다. 재혼의 성공률이 적다는 것이다. 그대 첫 남편과 그냥 살아야 했음을 70~80%가 후회하게 된다. 이혼한 부부들이 가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비하면 수명이 7~8년이나 단명한다.

카톨릭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나 유럽에서 한때 이혼을 허락한 일이 있었다.

한해 2만 쌍이 이혼했으나 이혼을 후회하고 그 중 80%가 1년 내에 재결합을 했다.

초혼을 끝까지 지켜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끝내라. 바꾸어 보았자 그 도둑이 그 도둑이다.

평범해 보이는 내 배우자 속에 보물이 있다. 미운 오리안둘 알고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우아한 백조였다. 다른 길 찾아보지만 처음 관계가 최선인 것을 알아라.

이길 저길 찾아 정육으로 치근덕거리는 것은 아깝다. 그대 지지고 볶으며 정으로 얼려온 본부인보다 월등한 썸녀는 세상에 없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과거

주님, 제 남편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를 용아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과거의 행실과 사고 방식을 벗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엡4:22-23).

그의 이해심을 넓혀 주사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알게 해주옵소서(제21:5).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일들을 성령의 영감으로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주의 음성을 과거의 음성들로부터 뚜렷이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에게 옛 용성들이 들릴 때에는 떨치고 일어나 주의 말씀의 진리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6:15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니. 히10:17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1

남편의 과거

주님, 간구하오니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고통이나 소외감이 현재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비통함과 보복심과 원망을 떨쳐 버리게 해주소서. 과거를 단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부터 그를 구해 주옵소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시 147:3).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시 23:3). 과거로부터 해방시키시며, 그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것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43:18~19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23:3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2~24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82번(갈매길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물 131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정 사무실 / 4층 - 시택
• 금액: 6억(조정가능) • 교회비품(무료로 드림(예배대기 등))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자시절, 타업종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있음

010-4154-7945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팔실로 180 /3층 (오랫동안 사용됨)
• 면적: 약 40평(실면적)
• 금액: 시설관리금 7백만원(조정가능)
-보증금 4천만 원(50만(부가세별도) / 관리비 5만
-보증금 3천만 원(55만 / 부가세관리비 25만)
※ 전세(바닥도 시가55만원, 시설완비, 화장실, 샤워실, 단독 2개 냉난방기 천정형)

010-2391-1663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우산동(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충금 리모델링 됨
• 금액: 보충금 1,000만원 월 50만원
※비품 상담 후 결정

010-3618-5946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원동
• 면적: 대지 656㎡ 연건평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본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상담후 결정

010-3602-3228

교회 임대

• 위치: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 근처) 2층
• 면적: 50평(예배당, 목장실, 유아실, 주방, 식당)
※깨끗하게 올리모델링
• 금액: 보충금 1,000만원 50만원
※시설비품 상담 후 결정

010-9212-1474/010-4102-3092

교회 매매

• 위치: 남구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34.5평 (예배당, 주방겸 교육관)
• 금액: 1억2천만원(대출 3천2백만원 포함)
성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 주차편리

010-2200-8905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항로(신항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물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습실
• 금액: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원 포함)
※리모델링(천정형 환풍기 및 난방)

010-9661-9099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오치동 금호타운상가 2층
• 면적: 30평 (예배당 / 주방겸 카페)
• 금액: 1억 5백만원
※리모델링 됨 ※교회비품 모두 무료
※주차 편리

010-2606-6529/010-6811-0656

교회 매매

• 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 114평 교회 40평 사택 20평
식당, 청고, 화장실,
• 금액: 1억 5천만원
※성물 외 집기포함

010-4630-0091

다가구 원룸매매

• 위치: 북구 두암동(588-1)
출몰러스 신광중부근 버스정류장3분거리
• 면적: 대지 45.82평 연68.47평
1층 주차장, 2~4층 원룸 12개
• 금액: 5억 5천만원(보6백50만/월3백만 포함)
※대로면 교통편리, 건물상태좋음

010-2217-2427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두암동
• 면적: 30평(3층)
• 금액: 보충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품비 있음

062-953-1377

교회당 임대

• 위치: 서구 금호동(금호지구대 근처)
• 면적: 31평(3층)내부시설
깨끗하게 리모델링
• 금액: 보충금 1,000만원 월60만원
※교회비품 상담후 결정

010-8615-2539

교회당 임대

• 위치: 남구 대남대로 289-1
• 면적: 47평 예배당(반지하)
방2개, 주방, 화장실(1층)
교회-유아실, 목회사무실 있음
금액: 보충금 500만원 월35만원

010-4149-8300